



유고연방

선거 무효로 정국의 불확실성 지속될 듯

지난 10월 13일 유고연방 내 세르비아 공화국(이하 '세르비아')¹⁾에서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치러졌으나, 약 45.5%에 불과한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했던 코슈투니차(V. Kostunica) 現 유고연방 대통령과 라부스(M. Labus) 現 유고연방 부총리가 결선투표에서 맞붙었으며, 약 86%가 개표된 상황에서 당초 예상대로 코슈투니차는 66.4%를 얻어 31.3%에 그친 라부스에 낙승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등록된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세르비아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결선투표 자체가 무효화되었으며, 재선거가 실시되어 세르비아 대통령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고연방의 정치적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슈투니차, 정치생명을 걸고 선거에 출마

2000년 9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밀로세비치(S. Milosevic) 대통령의 선거부정에 반발하는 군중봉기로 유고연방 대통령에 당선된 코슈투니차가 다시 세르비아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유고연방의 정체성이 불투명해진 것과 세르비아 공화국 총리인 진지치(Z. Djindjic)와의 권력투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와 함께 유고연방을 구성하는 몬테네그로 공화국은 밀로세비치 체제 붕괴 이후 세르비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발칸 지역의 국경선 변화를 허용치 않으려는 EU의 압력에 밀려, 두 공화국은 지난 3월 국체(國體)를

1) 지난 1990년대 수많은 유혈충돌을 빚으면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 분리된 후, 현재의 유고연방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2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1999년 기준으로 약 1,063만 명의 유고연방 인구 중 몬테네그로의 인구는 65만 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유고연방과 세르비아의 구분은 의미가 없음. 연방정부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간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실상 공화국 정부가 경찰권, 조세권 등 실질적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

유고연방에서 느슨한 국가연합체 성격을 갖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아직 새로운 국가연합의 구체적 권력구조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연방 대통령인 코슈투니차는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지금보다도 크게 격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선거에서 코슈투니차와 진지치는 밀로세비치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공동전선²⁾을 형성하였으나, 상이한 정치적 노선을 주장하는 두 사람은 그 이후 심각한 권력투쟁을 벌여 왔다. 특히, 상징적 존재의 성격이 강한 연방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장악한 세르비아 총리를 상대하기가 버거웠으며, 코슈투니차는 진지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밀루티노비치(M. Milutinovic) 現 세르비아 대통령은 밀로세비치가 내세운 구시대 인물로 국제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의 지명수배 대상자에도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할 차기 대통령은 세르비아 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찍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직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코슈투니차는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자신의 높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세르비아

대통령직의 확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할 경우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아 보여, 코슈투니차도 상당한 정치적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슈투니차와 진지치의 갈등 심화

대중적 인기도가 높은 코슈투니차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인 데 반해, 국내 보다는 서방 세계의 인지도가 높은 진지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서방의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서방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자는 입장인 진지치와 민족자존을 지키며 완만한 개혁을 주장하는 코슈투니차는 정책방향에 대해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독주하는 진지치에 대해 코슈투니차는 정치적 소외감을 느껴 왔으며, 특히 2001년 6월 밀로세비치의 ICTY 송환을 계기로 두 사람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코슈투니차는 밀로세비치의 송환은 민족적 수치이며 국내법에 따라 밀로세비치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미국의 강한 압박에 굴복한 진지치는 밀로세비치를 ICTY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로 전격 송환함으로써 코슈투니차에게 정치적 굴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코슈투니차는 세르비아 민주당(DSS) 의원들의 의회 등원을 거부하고, DSS 소속 각료들을 내각에서 탈퇴시

2)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밀로세비치에 대항하기 위해 진지치는 18개 정당을 규합하여 세르비아 민주야당(Democratic Opposition of Serbia: DOS)을 결성하였는데, DOS는 진지치의 민주당(Democratic Party: DS)과 코슈투니차의 세르비아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Serbia: DSS)이 양대 세력을 이루고 있음. 또한, 진지치는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코슈투니차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함으로써 밀로세비치 이후의 질서를 사실상 기획·실행하였음.

키는 한편, 자체적으로 예비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하는 등 진지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민주야당(DOS)과의 연정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 DSS의 이탈로 원내 과반수 의석의 안정적 확보에 불안을 느낀 진지치는 2002년 7월 의회 출석 부진을 사유로 일부 DSS 소속 의원들을 무리하게 제명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 조치로 진지치는 세르비아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코슈투니차가 DSS 소속 의원 45명의 집단사퇴로 맞대응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1·2차 투표 실시

지난 8월 말 코슈투니차는 DSS 후보로 공화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경제개혁, 밀로세비치 체제의 정리, ICTY와의 협력관계 정립 등의 현안을 보다 완만한 속도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경제전문가인 라부스 유고연방 부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며, 진지치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코슈투니차의 유력한 경쟁상대로 부각되었다.

지난 9월 29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예상외로 밀로세비치를 추종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자 세세리(V. Seselj)가 22.5%나 득표함에 따라, 코슈투니차와 라부스는 각각 31.2%와 27.7%의 저조한 득표율로 결선투표에 나서게 되었다. 결선투표에서는 코슈투니차의 낙승이 예상되었으나, 결국 세세리 지지세력의 향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율이 55%에 머물러 세세리의 지지세력이 대거 투표에 기권한다면 결선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것이 우려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치공백 사태 우려

선거 무효 확정 후 코슈투니차는 세르비아 정부와 민주당(DS)이 유권자들의 기권을 방관 또는 암암리에 조장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진지치를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코슈투니차는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현행 선거법에는 재선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재선거가 언제 실시될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현 대통령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 한 달 전에는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유고연방에는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이 상당한 지지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진지치로 대표되는 급진적 개혁파와 코슈투니차의 중도적 개혁파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어, 재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유고 정국에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깔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유고 주재 서방 외교관들은 이번 선거 무효 사태가 유고연방에는 악재라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많은 국내 정계 인사들도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에 유고연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비록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무난히 치러졌으나, 유고연방이 여전히 정치적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高 載 昊】